얼수병촌 번내골

예로부터 물이 좋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화순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바다, 숲과 계곡 덕분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금빛 모래해변에서 곶자왈까지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화순마을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화순로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7-1 ~ 안덕면 화순리 3587-4(약 2.7km)

화순해안로130번길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763-6 ~ 안덕면 화순리 631(약 0.5km)

화순해안로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45-4 ~ 안덕면 화순리 231-8(약 2.3km)

화순임중로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26-3 ~ 안덕면 화순리 429-5(약 0.8km)

화순서동로 | 서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31 ~ 안덕면 서광리 80-3(약 4km)

화순문화로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64 ~ 안덕면 화순리 2103(약 0.4km)

화순로 / 화순해안로130번길 | 화순 선사유적지

산방산 동쪽으로 난 **화순로**는 화순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다. 화순리 지역은 옛날에 골물과 번내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을 통합하면서 '온화하고 순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화순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옛날 제주 사람들은 물이 잘 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일강정 이번내 삼도원"을 꼽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번내가 화순리이다. 그만큼 예로부터 물 좋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은 오랜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했다.

화순해안로130번길을 따라가면 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집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 안덕계곡에서 이어지는 황개천과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로 식수를 해결하고,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인근의 월라봉과 산방산에서 열매와 짐승과 같은 식량을 마련했을 것이다. 거기다 주변의 적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에 천혜의 환경이었다.

화순 선사마을 유적공원

화순해안로 | 화순금모래해변

화순마을의 명소는 **화순해안로**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화순금모래해변이다. 화순금모래해변은 모래 속에서 사금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0년대에는 한 회사에서 화순광산사무소를 설치하고 금을 채굴했다고 한다. 지금은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양한 레저스포츠와 용천수를 이용한 천연 담수풀장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화순 금모래해변

화순금모래해변 동쪽에는 절벽을 끼고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주변의 바위들은 손으로 만지면

쉽게 부서져 사람들은 이곳을 썩은다리라고 부른다. 지금처럼 길이 나 있지 않던 시절, 이 언덕은 사계리와 화순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화순임중로 | 화순항

화순임중로는 화순항으로 향하는 화순해안로와 화순중앙로의 중간지점과 연결되는 길이다. 화순항은 제주 남서쪽의 대표적인 항구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6 · 25전쟁 때는 화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모슬포에 육군훈련소가 생기면서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된 신병들은 화순항으로 들어와 몇 주간의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투입되었고, 훈련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도 이곳으로 실어날랐다. 화순항으로 들어오는 배에는 전쟁을 피해 제주로 향한 피난민들도 함께 타고 왔다. 그들에게 화순항은 유일한 생명의 끈이자 희망의 장소였을 것이다. 현재 화순항은 주로 화물선이 드나드는 항구로 활용되고 있다.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심할 때면 많은 배들이 이곳으로 대피를 한다.

화순서동로 | 화순곶자왈

화순곶자왈

화순리와 서광동리를 연결하는 길인 **화순서동로**를 따라 올라가다 화순서서로와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면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숲길 입구가 나온다. 화순 마을의 북쪽에는 제주의 독특한 숲인 곶자왈이 남아 있다. 화순곶자왈은 중산간에서 해안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숲으로 5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어 자연과 더불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화순문화로 | 얼수명촌 번내골

화순문화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화순문화로**는 제주의 자연과 마을의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문화마을 화순리를 의미하는 길이다. 화순마을은 최근 '얼수명촌 번내골'이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험마을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해양레저체험, 자연에너지체험, 화순곶자왈 체험 등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